

竹 曠 吳 滂의 學問과 著述世界

Jukyoo Oh Un's Scholarship and Writings

김 순 희(Kim, Soon Hee)*

◁ 목 차 ▷

1. 서 론	3.2. 편찬 및 간행서
2. 오운의 학문과 저술	3.3. 교정서
2.1. 오운의 학문과 사상	3.4. 기타
2.2. 오운의 편간 및 교정도서	3.5. 서지학적 의의
3. 오운의 저서 및 편찬서 검토	4. 결 론
3.1. 저서	<참고문헌>

< 초 록 >

이 논문에서는 吳滂의 편찬서를 시대 순으로 고찰해 보고, 나아가 그의 학문과 사상을 고찰하여 그가 많은 도서를 편찬하게 된 내적 배경을 파악하였다.

오운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도서편찬자이다. 그는 임진왜란의 와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저술한 서적이 있는 것은 물론, 여러 도서의 편찬과 간행, 필사와 改粧 등에 관여하였다. 오운의 학문과 사상은 그의 도서편찬 활동에 기반이 된다. 그의 학문은 朱子와 朱子學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曹植과 李滉의 문하를 넘나들며 수학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주자학을 신봉하는 자세는 그의 저술에도 반영되었다. 오운은 대표적인 저서인 「東史纂要」를 짓는 과정에서도 주자학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오운은 유교적인 도덕률과 합리성에 기반을 두면서도 주자학의 정통 논리를 적용하려는 사림들의 역사 인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오운은 도합 11종의 서적의 저술과 편찬, 교정과 改粧 등에 관여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관여한 도서는 「松齋先生詩集」의 간행인데 이때 그의 나이 45세였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서적은 75세에 최종으로 改撰한 『東史纂要』이다. 이로 보아 오운은 학문과 경륜이 원숙해지는 장년에 이르러 직접적으로 도서의 편찬에 관여하였는데 이러한 자세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여기에서도 도서편찬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要語: 竹曠, 吳滂, 朝鮮中期, 朱子學, 松齋先生詩集, 咸州志, 龍蛇亂離錄, 退溪先生年譜, 嘯臯集, 朱子感興詩, 朱子文錄, 家世志, 東史纂要 圃隱先生文集, 韓歐蘇詩卷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접수일: 2008년 12월 8일 최초심사일: 2008년 12월 11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19일

<ABSTRACT>

In this paper, by reviewing in chronological order Oh Un's life and the books he compiled, and his scholarship and thought, the background which helped him compile so many books was examined.

Oh Un was a representative compiler in the mid-Joseon Dynasty. Writing some books on his own, he was also engaged in compiling, publishing, copying and re-binding many books eve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Oh Un's scholarship and thought became the foundation of his compilation. He devoted himself to Zhu Xi and his thought, that is, the Learning of Zhu, and got his education from Cho Sik and Yi Hwang. His inclination for the Learning of Zhu, had an influence on his writing so that he held fast to his principle in writing *Dongsachanyo* that was his representative book. He represented historical perspectives which applied the logic of the Learning of Zhu to Confucian rationality and moral.

Oh Un was involved in writing, compiling, revising, and re-binding the total of 11 titles. He published *Songjae Seongsaeng Sijib* which was the collection of Songjae's poems for the first time at the age of 45, and rewrote *Dongsachanyo* for the last time at the age of 75. Oh Un became directly engaged in compilation of books in the prime of life and scholarship, and kept his attitude until his death. This proves his devotion and enthusiasm as a compiler as well as a scholar.

Keywords: Jukyoo, Oh Un, Compiler, Zhu Xi's thought, *Dongsachanyo*, *Songjae's poetry*

1. 서론

竹牖 吳灑(1540~1617)은 경남 함안과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던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목할 만한 도서편찬자이다. 오운의 시대는 임진왜란을 겪는 역사적 변환기였다. 오운은 19세에 南冥 曹植(1501~1572)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25세 되던 해에는 退溪 李滉(1501~1570)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다. 오운이 남명과 퇴계의 문하생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신분과 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서지학의 측면에서 오운의 일생을 살펴보면 가장 주목되는 것이 그가 서적을 대단히 애호하였으며 직접 여러 서적을 저술하였음은 물론, 편찬과 간행 및 교정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조선조의 도서 출력이 王命이나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반해 오운 같은 개인이 저술과 출판에 노력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자는 오운의 저술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몰두해 왔다.¹⁾ 아직도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오운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도서편찬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별 저술이나 편찬 도서에 대한 것이었지만 본고에서는 오운의 편찬서를 그의 생애와 결부하여 연도순으로 고찰해 보고, 나아가 그의 학문과 사상을 고찰하여 그가 많은 도서를 편찬하게 된 내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오운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의 문집인 「竹牖全書」²⁾에 연보³⁾가 실려 있고 최근 오운의 고향인 고령군에서 오운의 삶과 학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그 결과를 책으로 출간하여⁴⁾ 오운의 연구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해 놓았다.

1) 김순희, “吳灑의 「東史纂要」의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12).

김순희, “吳灑과 「咸州志」,” 『書誌學研究』 제29집(2004. 12).

김순희, “竹牖 吳灑의 「圃隱集」 校訂에 대하여,”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2) 吳灑, 『竹牖全書』, 竹牖全書刊行委員會 (大邱: 大韓出版社, 1983).

3) 위의 책, 卷5, 年譜.

4) 죽유 오운의 삶과 학문세계, 『고령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7).』

본고는 학계의 이러한 업적을 참고하여 도서편찬자로서의 오운의 위상을 확인,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운이 갖고 있는 여러 위상 중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고를 통해서 오운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오운의 학문과 저술

2.1 오운의 학문과 사상

전통사회에서는 文史哲을 하나의 학문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조선조의 선비들은 학자이자 시인이며, 역사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 복합적 양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학문이나 저술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인물의 업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학문과 사상을 살펴야 한다. 오운의 학문과 사상을 고찰해 보면 두 가지의 양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1 주자학에의 경도

오운은 전형적인 朱子學者였다. 당시 주자학은 국가의 통치 이념이기도 했지만 오운은 평생을 주자학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학문적으로 주자학, 사학, 문학 방면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주자학에 경도되었다. 주자학은 학자가 꼭 배워야 할 학문으로서 주자학을 통해서 정치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자신이 주자학을 깊이 연구하였고 또 국왕에게 주자학의 진강을 건의하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주자에 대한 흥미와 주자학에 대한 경도로 인해 오운은 「朱子感興詩」 1절을 직접 써서

5) 허권수, “죽유 오운. 江左와 江右 문화의 융합자,”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40호(2007.), 6.

간직하였으며, 주자의 문집에서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3권의 책으로 묶은 「朱子文錄」을 편찬할 정도였다.

오운이 주자학에 크게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황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황은 조선의 주자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학자이다. 그의 문도들은 한결 같이 주자학을 학문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는데 오운도 마찬가지였다. 오운은 주자학을 신봉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주자의 글이 후세의 학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므로 중요한 문장을 선별하여 후학들을 계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운이 주목한 것은 疏筭였다. 오운은 이황이 『朱子書節要』를 節選하여 간행했으므로, 학자들이 주자의 서간문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글은 워낙 방대하여 읽어보기가 쉽지 않고, 당시의 상황에서 학자들이 『朱子大全』을 구해서 읽어보기도 쉽지 않았다. 주자의 글을 가려 뽑은 책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朱子文錄』을 편찬하여 간행했던 것이다.⁶⁾

이와 같은 주자학에의 몰두는 자연히 그의 저술에도 반영되었다. 오운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東史纂要」를 짓는 과정에서도 주자학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오운은 유교적인 도덕률과 합리성에 기반을 두면서도 주자학의 정통 논리를 적용하려는 사람들의 역사 인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⁷⁾ 이러한 사실을 고찰해 볼 때 오운의 학문이 주자학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2 曹植과 李滉 학문의 복합 계승

오운이 처음 조식을 찾아 문하에 들어간 것은 그의 나이 19세(1558, 戊午)이고⁸⁾ 曹植은 58세였다. 이 시기에 조식은 합천의 鷄伏堂과 雷龍亭에 머물면서 수양과 교육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오운이 나아가 배운 것이다.⁹⁾ 그리고 25세에 오운은 다시 李滉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는다.¹⁰⁾ 당시에 조식과 이황의 문하

6) 허권수(2007), 19.

7) 박인호, “『東史纂要』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지리인식,” 『죽유 오운의 삶과 학문세계』, 70

8) 吳澐, 『竹牖全書』, 『年譜』, 19歲條, 是歲拜南冥曹先生.

9) 사제명, “16.17C 초 남명문인의 형성과 강학,” 『남명학연구논총』 제9집(2001. 1), 340.

에 번갈아 출입하여 배운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특히 오운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私撰邑誌인 「咸州志」를 함께 편찬한 寒岡 鄭述도 오운과 마찬가지로 조식과 이황의 문하를 드나들었던 인물이다. 이와 같은 오운의 수학은 그의 학문과 사상을 고찰함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할 사실이다.

조선 중기의 정치적 상황은 士禍를 통해 사림파의 등장을 철저히 억제한 훈구파들의 전횡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나름대로 처세의 방법론을 찾아 나섰다. 南冥 曹植이 훈척 정권과 타협을 배제한 채 극한적 대응의 자세를 고수한 것이나 退溪 李滉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출처를 반복하며 일정한 타협의 면모를 보인 것, 栗谷 李珣가 참여 속의 개혁을 지향하며 유연한 태도로 일관한 것, 그리고 花潭 徐敬德이 현실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며 안빈낙도의 초연한 자세를 견지한 것 등으로 대조적 양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들의 현실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견해차를 반영하는 것이다.¹¹⁾

같은 해(1501, 辛酉, 燕山7)에 태어난 조식과 이황은 각각 경상우도와 경상좌도의 학문과 사상을 이끌었던 학자였다. 이들은 생전에 서로 만난 적은 없으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 조식과 이황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東人에 속하여 西人과의 알력과 갈등에 공동으로 대처하였으나, 서인의 영수였던 松江 鄭澈의 처리 문제로 인하여 南人과 北人으로 대립하면서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였다. 그러던 중에 「晦退辨斥疏」로 인하여 이들은 완전히 적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조식의 수제자인 鄭仁弘은 당쟁의 과정에서 문묘에 종사된 晦齋 李彦迪과 이황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려 정국을 혼란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식과 이황의 제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남명학과와 퇴계학과가 분열의 단계를 넘어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이 전개되자 두 사람 사이를 왕래하며 배운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았지만, 모두가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관망만 하고 있었다. 남명의 대표적 제자이자 퇴계에게서도 배운 鄭述가 막으려 해도 듣지 않는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은 학문적 접점을 찾아 화합의 매개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10) 吳滄, 「竹牖全書」, 「年譜」, 25歲條, 是歲拜退溪李先生.

11) 설석규, “16세기 영남사림의 문화와 오운의 역할,” 퇴계학과 한국 문화 제40호(2007), 104.

해야 할 지 뚜렷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기도 했다. 당시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앞장서 나선 사람이 바로 오운이었다.¹²⁾

오운은 『東史纂要』를 편찬하면서 『退溪集』과 함께 『南冥遺稿』를 참고하였다.¹³⁾ 이는 그의 역사서가 조식과 이황의 역사의식을 융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남명학과 퇴계학의 접점을 찾아 구현한 최초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¹⁴⁾

조식과 이황은 대조적인 면이 많았다. 두 학자는 다같이 辭受와 出處를 엄격히 따지고 또 연속된 사화에 지친 나머지 ‘難進易退’의 입장을 취하려 했지만, 퇴계는 과거를 거쳐 고관요직을 두루 역임한 끝에 정계와 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한 신진사류의 영수로서 조야의 숭앙을 한 몸에 받았다. 따라서 당대를 주름잡던 학자와 관인들이 대거 그의 문하를 출입함으로써 퇴계학파는 그 기반이 경상좌도에 국한되지 않고 거의 전국을 포괄하게 되었다. 또한 언행과 처신을 謹拙하고 審慎하여 시종 ‘尙仁’과 主理的 경향을 견지했기 때문에 퇴계학파는 동서 또는 남북분당과 같은 정쟁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대립은 피하는 등 壬亂 당시에 在朝 세력으로서 정국을 주도해 나갔다. 이에 반해 조식은 끝내 山林處士로 일생을 마쳤으며 그의 족적도 경상우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명문도들도 경상우도에 편재하였다. 그리고 그의 의리를 숭상하며 主氣的 현실대응 자세는 결과적으로 그의 문도들로 하여금 壬辰倭亂이 발발했을 때는 모두 倡義와 討賊의 대열에 나서게 했던 것이다.¹⁵⁾

오운은 이처럼 같은 유학자였지만 학문의 추구하고 처신의 방법이 다른 두 스승에게 영향을 받았으므로 그의 학문과 사상은 복합적인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오운은 조식에 게서 학문적 지식보다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함께 불의를 용인하지 않는 선과 악의 분별적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로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해석보다는 정주의 학문적 논리에 입각한

12) 설석규, “남명문도를 찾아서 : 산해당에 올라 퇴도실에 들어가다 - 죽유 오운,” 선비문화, 제10권(2006. 1), 106.

13) 吳澐, 『東史纂要』, 『纂輯諸書』에 『退溪文集』과 『南冥遺稿』가 수록되어 있다.

14) 설석규, (2006), 106.

15) 李樹健, “嶺南學派의 壬亂 義兵 活動,” 남명학연구소 임진왜란 400주년 기념 학술대회료집 (1992).

실천의 방법을 정립하는 데 주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서지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오운은 조식의 영향보다는 이황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식은 程朱 이후의 학자들은 책을 저술할 필요가 없다¹⁷⁾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황은 「朱子書節要」를 편찬하는 등 저술과 편찬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오운이 많은 저서의 저술과 편찬 및 간행에 참여한 것은 그의 선천적인 애호도 있었지만, 이황에게 배운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2 오운의 편간 및 교정도서

오운의 연보를 살펴보면 그가 관여한 도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가 도서의 편찬이나 정리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것으로 다음의 도서가 있다.

① 松齋先生詩集 ② 咸州志 ③ 龍蛇亂離錄 ④ 退溪先生年譜 ⑤ 嘯臯集 ⑥ 朱子感興詩 一帙 ⑦ 朱子文錄 ⑧ 家世志 ⑨ 東史纂要 ⑩ 圃隱先生文集 ⑪ 韓歐蘇詩卷.

위의 도서를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간략하게 살펴 아래의 도표로 제시하였다.

<표 1> 연대순 정리

순번	도 서 명	연 도	비 고
1	松齋先生詩集	1584, 45세	간행
2	咸州志	1586, 47세	편찬
3	龍蛇亂離錄	1593, 54세	편찬
4	退溪先生年譜	1600, 61세	교정 및 간행
5	嘯臯朴公文集	1600, 61세	교정
6	韓歐蘇詩卷	1605, 66세	改粧
7	東史纂要	1606, 67세	저술
8	朱子感興詩	1607, 68세	필사
9	朱子文錄	1611, 72세	편찬
10	家世志	1613, 74세	편찬
11	圃隱先生文集	1614, 75세	교정

16) 설석규, (2007), 123.

17) 허권수,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程朱以後 不必著書'

3. 오운의 저서 및 편찬서 검토

위의 도표에서 살펴보았듯이 오운은 책을 직접 짓기도 하고 편찬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책을 대신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다.

3.1 저서

3.1.1 「東史纂要」

이 저서는 오운의 학문과 사상, 정당한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 도서 출판에 대한 의지 등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최고의 저술이다. 이것은 그가 이 저서를 두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이 저술의 특징은 攬古證今, 就中撮要, 勸善懲惡, 三撰三刻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운이 「東史纂要」를 저술한 것은 임진왜란 같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¹⁸⁾

오운은 대부분의 사략형 역사서들이 연대순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관행과는 달리 자신의 역사서에 각종 제도를 정리한 ‘志’와 함께 역대 인물의 행적을 상세하게 기록한 열전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도덕과 명분의 관점에서 인물들을 평가함으로써 도학적 현실 대응 자세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그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다. 「동사찬요」의 편찬은 결과적으로 역사를 통해 도학적 삶의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남명학과 퇴계학이 접목된 세계관이 사림의 세계관으로 정립되는 토대를 구축하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다.¹⁹⁾

오운이 「동사찬요」를 쓴 목적은 좁게 보면 인물평을 위한 열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열전 편찬 기준은 충의 혹은 충절의 인사와 반적의 인사를 극단적으로

18) 김순희, “吳澐의 「東史纂要」의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12), 419.

19) 설석규, (2007), 136.

양극화하여 춘추필법에 입각한 준엄한 포폄을 가함으로서 도덕적 가치관을 확립 하는데 궁극의 목표를 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 기준 위에서 가장 표본적인 인물을 많이 배출한 영남 지방의 문화 전통을 현양시키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오운 자신의 강한 열의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²⁰⁾

오운은 이처럼 도서의 저술을 통해 조식과 이황의 학문을 융합하고, 제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인다. 오운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이 역사서를 저술하지는 않은 것이다. 저술을 통해 원만한 학문적 융합과 인간적 관계의 복원을 추구했던 오운에게서 진정한 저술가로서의 자세를 볼 수 있다.

3.1.2 「龍蛇亂離錄」

이 책은 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 때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오운은 의병장 광재우를 도와 많은 전공을 세운 인물로 임란 당시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기록하고 편찬하기를 좋아했던 그의 성격으로 인해 이 책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쉽게도 현재 전하지 못한다. 「竹牖先生文集」에도 「年譜」에만 이 책을 저술한 사실이 간단하게 실려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한 序跋도 보이지 않는다. 오운이 이 책을 撰成한 것은 1593년, 그의 나이 54세 되는 해이다. 이 해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다음 해이므로 전쟁 중에 틈틈이 기록하여 책으로 완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鶴峯 金誠一(1538~1593)이다. 김성일은 오운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같이 의병활동을 한 지기였다. 「竹牖先生文集」에 「書金鶴峯龍蛇事蹟後」가 있는데 이는 김성일이 지은 「龍蛇事蹟」에 跋文격으로 지은 것이다. 그런데 김성일의 문집인 「鶴峯集」에는 「龍蛇事蹟」을 지었다는 기

20) 한영우, “17세기 초 동인의 역사 서술,” 『조선 후기 사학사 연구』 (서울: 일지사, 1985), 149.

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拾遺에서 ‘龍蛇錄’에서 인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김성일이 사망한 것이 1593년이니 적어도 이 기록은 그 이전에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오운의 「龍蛇亂離錄」처럼 임란 중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운은 김성일이 엮은 책을 나중에 보고 그에 대한 소감을 기록했다. 오운이 「書金鶴峯龍蛇事蹟後」를 쓴 것이 1600년, 그의 나이 61세 때이니 한참 후에야 김성일의 책을 보았던 것이다. 오운은 이 책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것이 없을 수 없으니 간혹 마땅히 생략해야 할 것인데도 도리어 자세히 쓴 것이 있으며 당연히 기록해야 할 것을 누락한 것도 있다’²¹⁾고 말했다. 이것은 자신이 정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로 보아 오운이 「龍蛇亂離錄」을 지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있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저술가의 기본적인 방식이다. 오운은 임란의 와중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보관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3.2 편찬 및 간행서

3.2.1 「威州志」

寒岡 鄭述(1543~1620)가 함안군수로 재직하던 중 이 책을 편찬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읍지의 편찬을 주도한 사람이 오운이었다. 오운은 임란 후 정구에게서 「威州志」를 얻어 보고 1부를 필사하였다. 현전하는 「威州志」에는 전하지 않지만 오운의 문집인 「竹牖先生文集」에는 이 읍지의 편찬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인 「題威州志後」가 실려 있다.

먼저 오운은 「唐本建陽志」와 「大明一統志」에는 주부지가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군현의 읍지가 없다는 사실을 개탄하였다.²²⁾ 이어서 정구가 함안군수로

21) 오운, 「竹牖先生文集」 권3, 書金鶴峯龍蛇事蹟後.

‘第於其間 不能無可疑處 或有宜略而反詳者 有當錄而見漏者’

22) 오운, 위의 책, 題威州志後.

부임한 뒤에 읍지를 편찬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였다.²³⁾

「威州志」는 현전하는 유일한 私撰邑誌이다. 「威州志」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조선 전기에 정부의 주도하에 편찬된 전국적인 규모의 地理書 중 마지막으로 작성된 「東國輿地勝覽」이 갖는 모순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地理志의 서술양식에 일대 획을 그어 놓은 것이다.²⁴⁾ 이것만으로도 오운의 도서 편찬 능력이 탁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2 「朱子文錄」

이 책은 오운이 주자와 주자학을 신봉했던 학자였음을 보여준다. 오운은 처음 館本 「朱子全書」를 구입하여 읽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임진왜란의 병화로 인해 소실되었다. 난후 오운은 이 전서를 친구에게서 빌려 보았는데 그 총 권수가 90여 권이었다. 그런데 오래 빌려 볼 수도 없고, 또한 양이 방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節錄하여 책으로 만들 생각을 갖게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자가) 친구들과 문답한 서찰은 퇴계선생이 선별한 「朱子書節要」가 있어 지금 집에서 보관하는 자가 아직도 많이 있어 쉽게 구해 볼 수 있다. 封事나 奏劄에서 雜著, 序, 記 같은 것들은 모두 절실한 것이고 疏劄은 더욱 선생의 나라를 생각하고 임금을 걱정하는 뜻을 볼 수 있으며, 경륜과 큰 계책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읽고 지나가면 흥미하여 잊어 버리므로 그 만에 하나라도 기억할 수 없는 것이 깊이 두렵다. 그 중에 나아가 약간의 편을 등사하여 상중하 3권으로 단장하여 항상 책상 위에 펼쳐 놓았으니 감히 버리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어둡고 빛은 무디어 많이 미치지 못했을 뿐이다.²⁵⁾

“嘗見唐本建陽志 載其一邦風土事蹟 裒成數卷 則一統志 外又別有州府志 可知吾東國郡縣有志 未之前聞”

23) 위의 책.

“我寒岡鄭相公 往在丁亥季間 佩符威州 莅郡之初 慨然以崇祀典樹風聲 爲發政第一事 修社壇 表賢祠 飾旋閭 無廢不興 又念本郡溪山之秀 地靈之美 甲于海邦 而文獻無徵 內招延儒士 議撰郡志 設局於官裏 其凡例悉倣輿地志 而總目有加焉”

24) 崔允榛, “朝鮮前期 鄉土勢力 연구를 위한 試論,” 진주사학, 제4호(1996), 99-100.

위의 인용을 살펴보면 오운이 『朱子文錄』을 편찬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는 주자의 잡저 중에서 특히 疏筍에 관심을 갖고 이 주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3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이황의 『朱子書節要』의 뜻을 계승한 것이다. 그리고 『東史纂要』를 저술한 의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오운이 저서를 통하여 주자의 가르침으로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편찬은 오운이 이황의 영향을 받아 도서편찬자가 되었음을 입증한다. 이황은 후학을 훈도하기 위해 주자의 방대한 저술을 요약, 정리한 학자였다. 그것을 본받아 오운도 이 책을 편찬하였으니 오운의 도서편찬의 연원이 이황임을 알 수 있다.

3.2.3 「家世志」

이 책은 오운이 시조인 한림학사 吳學麟에서부터의 가계를 정리한 것이다. 오운이 고창오씨의 족보를 본 것은 그가 젊어서 한양에서 관직에 있을 때이다. 그러나 임진란 중에 망실되어 전하지 않음을 애석하게 여겨 오운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가계를 정리하였다. 특히 선조들의 외가의 선계와 외손들의 계보도 첨기하여 도표를 작성하였으며 사위들도 註를 나누어 기록하였다. 다만 시조로부터 직계의 가계만을 기록하였고, 다른 지파의 가계는 생략하였다.²⁵⁾

이 「家世志」는 오운이 74세에 편찬한 것으로 말년의 역량을 집중하여 완성한 것이다. 오운은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碑銘과 관련 기록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25) 오운, 위의 책, 『書朱子文錄後』.

‘竊念 知舊問答書札 有退溪先生所選切要目 今家藏者常多 易於求見 至若封事奏筍 以及雜著序記之類 并切於後學 而疏筍則尤可見先生愛國憂君之意 經綸大略具焉 讀過昏忘 深懼終不能記萬一 就其中謄寫若干篇 粧成上中下三冊 常展之案上 非敢有所去取 眼昏筆鈍 力不可及多乎爾’

26) 오운, 위의 책, 『家世志序』.

‘書之弁首 累世外家先系 所及知 亦各序次爲圖 外系及子壻分註于下 皆書直系而止 不及支派’

사이사이에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였는데, 이는 「東史纂要」에서 褒貶의 방식을 취한 것과 같은 방법이다. 오운은 후손들이 이 세보를 보고 先世의 행적과 자손의 源派를 알아서 근본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술했다.²⁷⁾

3.2.4 「松齋先生詩集」

오운은 자신의 편찬서가 아니더라도 문집의 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 문집의 간행이다. 이 문집을 지은이는 松齋 李堦(1469~1517)이다. 이우는 이황의 숙부인데 이황이 어려서 이우에게 학문을 전수받아 대성할 수 있었으므로 특히 존중하는 바가 있었다. 이황은 이우의 문집 중에서 시를 선별하여 직접 써서 1권의 책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을 宗家에 보관하였는데 오래 간행하지 못하다가, 마침 충주목사로 부임한 오운에 의하여 간행된 것이다.²⁸⁾

이 시집은 오운에게 본격적인 도서편찬 및 간행자로서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책이다. 간행의 배경으로 스승인 이황이 직접 淨寫한 시집이라는 것과 오운의 조부 吳彦毅가 李堦의 사위였다는 사실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관계만으로 책을 간행하기는 어렵다. 당시에 책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물자가 필요하였으므로 대단한 정성과 사명감이 있어야만 출간할 수 있었다. 간행과정에서 오운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으므로 이 책은 오운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전해졌을 가능성조차 의심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오운이 관여한 서적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이 문집이다.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도서 출간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자기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운은 이 문집의 출간하면서부터 진정한 도서편찬자

27) 오운, 위의 책.

‘至若碣銘見於選集諸書中者 拈出別錄 間亦竊補僭述 合爲一帖 將擬繕寫數件 遺諸後裔 使先世行蹟與子孫源派 或可憑此’

28) 오운, 위의 책, 「松齋先生詩集跋」.

‘松齋詩集乃退陶先生嘗就元集中所選 其下拾遺亦先生手自淨寫合爲一卷 藏之宗家 久未鏤板 溘去年秋 佩符中原 公務之暇 鳩工繕梓 閱月而功訖’

로서의 위상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3 교정서

3.3.1 「嘯臯先生文集」

이 책은 嘯臯 朴承任(1517~1586)의 시문집으로 「嘯臯集」이라고도 한다.²⁹⁾ 박승임은 영남사람의 저명한 인물로 이황의 제자였다. 같은 이황의 제자였으나 나이가 20여 년 이상 차이 나므로 오운이 존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오운은 1600년에 栢巖 金玠과 함께 이 문집을 伊山書院에서 교정하였다.³⁰⁾ 그리고 같은 해에 이 문집이 간행되었으니 이 과정에서 또한 오운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3.2 「圃隱先生文集」

오운의 교정 작업을 대표하는 예가 「圃隱先生文集」의 교정이다. 오운이 「圃隱集」을 교정한 것은 1614년(당년 75)이었고, 교정의 대상으로 삼은 판본은 永川舊刻本이다. 이 판본은 1584년에 宣祖가 西厓 柳成龍에게 舊本을 교정하여 改撰本을 만들게 한 것으로, 익년 7월에 완성되어 永川의 臨臯書院에서 간행한 것이다.

「圃隱集」은 1439년에 초간된 뒤에 지금까지 12차례의 重刊을 거쳤다. 오운의 교정 내용은 편집 순서의 수정을 주장한 것과 오자의 교정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오운은 문집의 체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序文의 경우 卞季良, 河崙, 朴信, 權採, 盧守愼의 순서로 수록해야 한다고 단언하였는데 그 이유는 서문을 쓴 사람의 나이와 서문을 쓴 年次를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附錄과 跋文의 경우에는 撰者의 위상과 역량을 감안하여 배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9) 韓國文集叢刊 권36에는 「嘯臯集」이라는 제명으로 실려 있다.

30) 오운, 위의 책, 年譜, '六月 校正嘯臯朴公文集于伊山書院'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集部1, 嘯臯先生文集 條, p.458.

오자의 교정에 있어서는 탁월한 안목을 바탕으로 세밀히 살펴 오류를 수정하였다. 오운은 字體가 유사한 한자 중 잘못 쓴 것을 바로잡는 한편 점 하나라도 틀린 것은 고쳐 놓았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항은 교정에 참여한 동료들과 의논하여 결정하였으며, 의혹이 생기면 방증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의문점을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증명했다.³¹⁾

3.3.3 「退溪先生年譜」

오운은 1600년(당년 61세)에 백암 김득과 安村 裴應璣 등과 함께 이황의 연보를 교정하여 「退溪先生文集」을 간행하고 도산서원의 사당에祭를 올렸다.³²⁾ 「退溪集」은 1599년 문인 趙穆 등에 의하여 처음 간행되어 누차 중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退溪先生年譜」도 독자적으로 간행되었는데, 유성룡이 편집 책임을 맡아 완성한 것이 1601년이다.³³⁾ 유성룡이 편집을 완성했다는 것은 오운 등이 교정하여 정리한 것을 말할 것이다.

현재 규장각본 「退溪先生文集」은 1735년에 간행된 것인데 여기에는 권말에 年譜가 실려 있다.³⁴⁾

오운과 함께 교정에 참여한 백암 김득과 안촌 배응경이 주목된다. 이들은 이 연보 외에도 오운과 관련된 여러 저서의 교정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운과 이들이 여러 번 교정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당시에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교정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오운은 전문적인 교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서에 대한 깊은 애호에서 시작하여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철저한 자세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는 그가 『東史纂要』를 세 차례에 걸쳐 수정하였던 사실과 일맥

31) 김순희, 위의 논문.

32) 오운, 위의 책, 年譜, 61歲條, '五月退溪先生文集刊訖 與諸公祭告陶山院祠'

33)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史部4, 退溪先生年譜, 條.

34) 위의 책, 集部2, 退溪先生文集, 條.

상통하는 것으로 도서편찬자로서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3.4 기타

오운이 관계한 도서 중에 그가 직접 저술하거나 편찬, 간행하지는 않았지만 도서에 대한 그의 애호를 알 수 있는 책들이 있다. 筆寫本과 改粧本 등이 이에 속한다.

3.4.1 「韓歐蘇詩卷」

이 책은 오운이 편찬하거나 필사한 것이 아니고 改粧한 것이다. 이것은 필사본인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시인인 韓愈와 歐陽脩, 蘇軾의 시 중에서 선별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원래 이것은 오운의 조부인 吳彦毅가 자제들에게 시를 가르치기 위하여 필사한 것이다. 그런데 임진왜란의 와중에 선조들이 남겨 놓은 유물이 거의 망실되어 오운도 이 책에 대해 잊고 있었다. 그 후 오운의 아들이 오운의 사촌동생인 吳淵의 집에 갔다가 다행히 보존되고 있던 이 책을 빌려 오게 되었다.

오운이 다시 이 책을 본 것은 책이 지어진 이후 68년이 되던 해였다. 연도가 오래되어 裝幀이 낡아진 것을 오운이 직접 다시 배접하고 1권이었던 것을 2권으로 분권하여 색깔 있는 비단을 붙여 단장해 놓았다.³⁵⁾

권두의 「元和聖德詩」와 「南山謝自然詩」는 대사헌 李瀼과 이황이 각각 쓴 것으로 전하며, 이황은 蘇軾의 시도 일부 썼다고 한다. 또 上下의 隔紙에 草書로 쓴 律詩와 絕句詩는 오운의 숙부인 春塘 吳守盈의 필적이다.³⁶⁾

35) 오운, 위의 책, 「韓歐蘇詩卷跋」,

‘第以歲久磨綻 乃手自粘補 劈爲兩冊 粧以色絹’

36) 오운, 위의 책, ‘首題元和盛德詩 大憲李相公所寫 南山謝自然詩 退溪先生所寫 間又下筆於蘇詩中也 ……上下隔紙所書律絕 進士叔父十八歲時筆’

여기에서 오운이 손수 책을 裝幀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애호의 수준을 넘어서 책을 직접 꾸밀 수 있었다는 것은 도서 전반을 다룰 수 있는 그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3.4.2 「朱子感興詩」

오운이 주자를 존경하여 주자의 시중에서 20수의 감흥시만을 모아 필사한 책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오운은 필체가 뛰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서사능력을 바탕으로 당년 68세 되던 해 3월에 오운은 이 필사본을 만들었는데 卷末에 이황의 序와 跋이 있다.³⁷⁾

3.5 서지학적 의의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오운이 도서의 편찬과 간행에 직, 간접으로 관여한 것이 11종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운의 이러한 업적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매우 주목해야 할 것으로 도서편찬자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오운은 조선 후기의 도서편찬자로 이름 있는 淡窩 洪啓禧(1703~1771)와 비교할 수 있다.

홍계희가 직접적으로 편찬에 관여한 서적으로 밝혀진 것은 총 27종이다. 그중에 저술한 것은 1종이고, 편찬한 것이 13종이며, 간행에 관여한 것이 10종이었다.³⁸⁾ 그러나 홍계희는 영조시대에 발흥했던 도서출간의 시대적 분위기에 힘입은 바가 크고, 또 한양의 정계에서 실력이 있던 인물이었으나, 오운의 시대는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있어 홍계희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운은 주로 지방의 수령을 지냈을 뿐이니 여러 모로 보아 오운의 환경이 훨씬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도서의 편찬과 간행에 열의를 보이고

37) 오운, 위의 책, 「年譜」, 68歲條, ‘三月手書朱子感興詩一帙 藏于家 篇下有退陶先生序與跋’

38) 김순희, “淡窩 洪啓禧의 編刊書에 대하여,” 國會圖書館報, 제36권 1호(1999), 96.

있으니, 이것이 오운이 갖는 도서편찬자로서의 서지학적 의의일 것이다.

4. 결 론

오운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도서편찬자이다. 그는 임진왜란의 와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저술하였을 뿐만아니라, 여러 도서의 편찬과 간행, 필사와 改粧 등에 관여하였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으로 삼는다.

오운의 학문과 사상은 그의 도서편찬 활동에 기반이 된다. 그의 학문은 주자와 주자학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조식과 이황의 문하를 넘나들며 수학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주자학을 신봉하는 자세는 그의 저술에도 반영되었다. 오운은 대표적인 저서인 「東史纂要」를 짓는 과정에서도 주자학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오운은 유교적인 도덕률과 합리성에 기반을 두면서도 주자학의 정통 논리를 적용하려는 사람들의 역사 인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주자의 문장 중에서 선별하여 「朱子文錄」을 편찬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오운은 조식에게서 학문적 지식보다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함께 불의를 용인하지 않는 선과 악의 분별적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로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해석보다는 정주의 학문적 논리에 입각한 실천의 방법을 정립하는 데 주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식은 程朱 이후의 학자들은 책을 저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황은 「朱子書節要」를 편찬하는 등 저술과 편찬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오운은 조식의 영향보다는 이황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운이 많은 저서의 저술과 편찬 및 간행에 참여한 것은 그의 선천적인 애호도 있었지만, 이황에게 배운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오운은 도합 11종의 서적의 저술과 편찬, 교정과 改粧 등에 관여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관여한 도서는 「松齋先生詩集」의 간행인데 이때 그의 나이 45세였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서적은 75세에 최종으로 改撰한 「東史纂要」이다. 이로 보아 오운은 학문과 경륜이 원숙해지는 장년에 이르러 직접적으로 도서의 편찬에 관여하였는데 이러한 자세는 그가 세상을 버릴 때까지 계속되었다. 여기에서도 도서 편찬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오운은 조선 후기의 도서편간자인 홍계희와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는 도서편찬자였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오운의 편간서에 대하여 개별적인 고찰이 이어져 그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史部.
- 吳澐. 「竹牖全書」, 竹牖全書刊行委員會, 大邱: 大韓出版社, 1983.
- 고령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죽유 오운의 삶과 학문세계」.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7.
- 김순희. “吳澐의 東史纂要 의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12), 393-420.
- _____. “吳澐과 「咸州志」.” 「書誌學研究」 제29집(2004. 12), 475-498.
- _____. “竹牖 吳澐의 「圃隱集」校訂에 대하여.”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337-359.
- 사재명. “16·17C초 남명문인의 형성과 강학.” 「남명학연구논총」 제9집(2001), 335-370.
- 설석규. “남명문도를 찾아서 : 산해당에 올라 퇴도실에 들어가다 - 죽유 오운.” 선비문화, 제10권(2006), 103-117.
- 설석규. “16세기 영남사림의 분화와 오운의 역할.” 「퇴계학과 한국 문화」 제40호(2007), 103-142.
- 李樹健. “嶺南學派의 壬亂 義兵 活動,” 「남명학연구소 임진왜란 4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1992).

崔允榛. “朝鮮前期 鄉土勢力 연구를 위한 試論.” 전주사학」 제4호(1996). 83-109.

한영우. “17세기 초 동인의 역사 서술 : 오운의 <동사찬요>와 조정의 <동사보유>” 『조선후기 사학사 연구』, 서울: 일지사, 1985.

허권수. “죽유 오운 : 江左와 江右 문화의 융합자.”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40호 (2007. 1), 5-28.

